

#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내달 10일까지 밝혀진다

### 국과수 김동환 실장 “5·18 총탄 분석 광주시에 통보할 것” 광주일보 1995년 전교사 교훈집 근거 ‘무장헬기 30대’ 보도 교훈집에도 헬기 5개 기종 31대 827시간 운항 기록 담겨

광주시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헬기사격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이 100여점 넘게 발견된 것과 관련, 현장 조사를 한 국립수사과학연구원 관계자는 “내달 10일까지 정밀 분석 결과를 의뢰 기관인 광주시에 보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탄착군, 총탄으로 인한 훼손 정도 등을 분석하면 헬기 기종(기총소)사 인지 여부가 가려진다는 질문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과수는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닌,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가감없이 의뢰 기관에 전달하는 기관으로 여기에 정책적 고려는 개입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 광주민중항쟁 직후부터 증언과 목격담만 무성했던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의 진실은 국가기관인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 올 1월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국내 총기 및 총탄 분석의 권위자로 주목받은 김 실장은 지난 13~14일 전일빌딩 현장 조사를 거쳐 “건물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은 당시 전일빌딩 높이와 유사한 건물에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 흔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발견된 탄흔이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기 위해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기총소사’인지, 탑승한 군인이 휴대한 소총으로 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기총소사 여부에 따라 군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커다란 차이를 불러오는 만큼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광주시로부터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전일빌딩의 사적지치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10층 내부에서 헬기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130여 개 발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군이 그동안 한결같이 부인해왔던 ‘1980년 5월 계엄군 헬기 사격’ 의혹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備)보고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80년 5·18 직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의해 작성돼 지난 1989년 국방부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을 다룬 기사 <광주일보 1995년 7월 22일자> ‘무장헬기 30대...왔나 안왔나’를 보면, 당시 동원된 헬기가 무장을 했었고 다량의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다. 기록에는 항공자전적 문제점으로 ▲표적지시의 불확실 ▲요청표적 위치에 아군 병력 배치 ▲공중 사격 감행시 피해확대 우려 등의 내용이 거론됐다. 당시 헬기가 상부로부터 사격지시를 받았고 최소한 사격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1980년 5월21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는 항공 제1여단 31 항

공단과 61항공단 군인 1백8명이 500MD 12대, UH-1H 11대 등 모두 5개 기종, 31대의 헬기를 운용했다. 운항 시간은 8백27시간으로 적고 있다.

기사는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남구 진월동에 사는 서모(여·42)씨가 “21일 오후쯤 방안에 있다가 많은 총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다. 한참 뒤 남편이 들어와 모두 살아서 다 행이라고 해 정신을 차려보니 지붕 천장에 구멍이 뚫려 기왓장 틈으로 하늘이 보였고 벽에도 수도 없는 총탄이 박혀 있었다.”라는 증언도 소개했다. 증언을 종합하면 ▲5월21일 오후 3시를 전후한 시각에 ▲주로 도청 쪽에서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 또는 월산동 쪽으로 비행하며 사격을 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갑질 사범’ 523명 적발

### 광주·전남경찰 특별단속

경찰이 공정한 사회 문화를 확립한 다며 최근 100일간 진행한 ‘갑질 사범’ 특별 단속에 광주·전남에서만 523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갑질 사범 386명(272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례는 악성 고객(블랙컨슈머) 183건, 직장 내 폭행·폭언 18건, 직장 내 성폭력 17건, 공직 비리 5건 등이다. 같은 기간 전남지방경찰청도 갑질 사범 137명(78건)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5명을 입건 조치했다.

구체적 갑질 사례로는 ▲고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동통신 고객센터를 하루에도 2~3차례씩 총 36차례 찾아가 상담원에게 인사를 강요하고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악성 고객’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 도중 병원을 가겠다는 중언원을 폭행한 마트 관리인 ▲배구부 코치라는 갑의 위치를 무기 삼아 지도하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지도자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고용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둔기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영업주 사례 등이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모친 부양문제 형 폭행한 동생

○--어머니 부양 문제를 놓고 친형과 욕설을 주고 받다가 급기야는 폭력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서형.

○--18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문모(52)씨는 지난 17일 밤 10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형(66)을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주워 온 돌맹이로 형을 위협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문씨는 경찰에서 “최근까지도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집에 머물고 있는 형이 어머니를 보살피기는커녕 잠만 자는 것이 눈에 거슬렀다”며 “집에 오기 전 한 잔 마신 술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헌재 탄핵 판단 기준은 ‘국민의 뜻’이어야”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기 552명 참여

### 광주 8차 촛불 3만명 참여 전남 17개 시·군서도 열려 21일 사드반대 평화버스 24일 이어 31일엔 ‘하야의 종’

“존경하는 박한철 재판관님(헌법재판소장), 헌법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잘 판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현명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판장님은 우리의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하지않도록 잘 판결해 주세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광주 문산초 5학년 윤리 올림)

지난 17일 광주와 전남에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 속에도 금남로와 각 시·군의 촛불집회 현장을 찾은 시·도민들은 하루빨리 탄핵 심판을 인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촛불로 표출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린 8차 광주시국촛불대회에는 모두 3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집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등의 정당발언, 공연, 시민 대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박근혜는 즉각 퇴진, 황교안도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촛불 파도’를 헌재에 보내기도 했다.

광주민변 김정희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14가지들 다 따지

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헌재가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이전에 ‘조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 외치자 시민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서 촛불집회 사전행사마당에서는 광주YMCA촛불지원단 등의 주최로 ‘헌법재판관께 1천장의 연하장 보내기 운동’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한 명을 선정해 친필로 연하장을 쓴 뒤 우편료와 함께 금남로 거리에 별도로 마련된 우체통에 넣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연하장 보내기운동에는 모두 55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수신자별로는 박한철 소장 22.9%(126통), 조용호 재판관 17.1%(94통), 이정미 재판관 16.9%(93통), 서기석 재판관 12%(66통)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순천, 목포, 여수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모두 5000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목포에서는 박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감옥과 곤장 이 등장했다.

크리스마스 연말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른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청에서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평화 버스’가 경복 성주로 떠난다고 밝혔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캐럴 바퀴 부르기’ 등으로 집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날인 31일엔 촛불집회와 함께 이날 자정께 금남로 5·18민주광장 앞 민주의 종각에서 ‘하야의 종’을 칠 예정이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8차 광주시국촛불대회에 앞서 풍물패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즉각 심판을 기원하는 풍물놀이 한마당을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313건 의견 표출...대통령 퇴진 후 청산과제 새누리당-최순실 일가 순

### 만민공동회 시민 의견 보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후, 같이 보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촛불을 든 광주 시민들은 ‘새누리당’이라고 답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8차 광주시국촛불대회에 앞서 ‘광주 촛불 만민공동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열렸던 광주촛불 만민공동회

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청산 과제’를 피켓에 자유롭게 적은 뒤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285명의 시민이 참여해 313건의 의견을 표출했다.

최우선 청산 과제로는 전제 응답자 중 29.4%(92명)이 제출한 ‘새누리당’으로 꼽혔다. 이어 ‘최순실 일가,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국정농단 범죄자’ 17.6%(55명), ‘정리되지 못한 사회시스템과 사회 부조리’ 10.2%(32명), ‘국정 역사교과서’ 8%(25명) 순이었다.

‘보수기득권세력 및 부역자’(7%)와 ‘정경유착’(6.7%)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5.1%), ‘친일파와 친일잔재’(4.2%) 등도 버려야 할 것으로 꼽혔고,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1%)이라고 답한 시민도 있었다.

분야별로는 정치 53.7%(168명), 사회 18.2%(57명), 교육 11.2%(35명), 경제 10.2%(32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민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b>병원</b>	<b>상가 주택</b>	<b>골프장</b>	<b>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b>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키린 12층 / 중마초등학교 서측	수익형 빌딩
<b>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b>	<b>매매가 2억 7천만</b>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b>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b>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동구 산수동 / 2층 / 대지 35평 건물 32평 / 55m 도로점	상가	<b>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b>
<b>첨단 상가 15억 월세 1000만원</b>		서구 치평동 (상부지구 세정아울렛) / 4층 중 1층 / 건물 35평 / 코너 / 주차장	<b>모텔</b>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b>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b>
<b>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b>		상가	<b>매매가 17억</b>
<b>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b>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b>매매가 13억</b>
		전원주택	<b>매매가 12억</b>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b>매매가 8억 5천만</b>
		수익형 주택 부지	<b>매매가 5억 5천만</b>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점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b>매매가 4억 3천만</b>
		모텔 부지	<b>매매가 5억 5천만</b>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b>매매가 4억 3천만</b>
		임대 수익형 주택	<b>매매가 4억 3천만</b>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b>매매가 4억 3천만</b>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b>매매가 4억 3천만</b>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층일반주거지역 / 도로점 / 월출산 조망	<b>매매가 4억 3천만</b>